

농촌지역의 법정기간내 출생신고율과 신고된 생년월일의 정확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한 · 이창익 · 김장락 · 송정흡 · 예민해

경상북도 군위군 보건소

조 성 역

= Abstract =

Birth Registration Rate and Accuracy of Reported Birth Date in Rural Area

Jung Han Park, M.D., Chang Yik Lee, M.D., Jang Rak Kim, M.D., Jung Hup Song, M.D., Min Hae Yeh,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ng Eok Cho, M.D.

Health Center, Gunwee County, Kyungpook

To measure the birth registration rate and the validity of birth registration data in rural area, all of the 4,014 married women under 49 years of age who had not been sterilized in Gunwee county of Kyungpook province were followed by Myun health workers for 2 years from April 1, 1985 to March 31, 1987 and 766 births were detected. All of the birth registration records of Myun offices were reviewed on September 30, 1987 and 944 births which occurred within the above mentioned period were found. Actual birth date obtained by follow-up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birth date on registration card.

Among 766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 576 births(75.2%) which were report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were ascertained on the official registration records and 96 births(12.5%) were not found on the records although mother stated that the birth was registered.

The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was 61.3% among 576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 and also ascertained on the official records. The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was lower in mothers under 20 years of age and above 35 years and in mothers who had only primary education. It was decreased as the birth order increased. The registration rate was higher in births occurred from October to March than births occurred from April to September. All of the births of 7 neonatal deaths were not reported.

The registered birth date was consistent with the actual birth date in 78.0%. Birth date on record was earlier than the actual birth date in 6.8% and later in 15.3%. The consistency rate was lower in mothers above 35 years of age(54.5%), and in infants of 4th birth order and above(56.3%). The rate was increased as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increased. The rate of boy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A higher percentage(17.4%) of infants born in March was registered with earlier date than the actual birth date and most of these registered birth dates were lunar calendar date. This might be related with the age for entering the primary school.

The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the birth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and accuracy of report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infant mortality rate deriv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seems to be very inaccurate. It is suggested to let the medical personnel who delivered the baby report the birth by mail directly to the current address of parent while infants delivered at home without professional attendant may comply with the present registration system.

I. 서 론

인구 동태 신고 자료는 인구 센서스 자료와 더불어 역학적 연구에 모집단을 설정하고 분모를 구하는 데 쓰이며(김정순, 1986), 국가의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특히 가족 계획 사업을 포함한 보건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꼭 필요한 자료이다(경제기획원, 1980). 출생 신고는 인구 동태 통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신분 증명이나 학교 입학에도 필수적이다(Last, 1980). 인구 동태는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신고됨으로써 파악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사건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어 센서스 등의 자료에 수학적 모형을 적용한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Mausner, 1985 ; 김정순, 1986).

우리 나라에서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신고율은 계속 향상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둘째,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 혜택과 같이 각 개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출생 신고에 관한 자료를 보면 신고가 법정 기간내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것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출생 신고의 당내년도 신고율은 1966년에는 34%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에는 74%까지 향상되었지만(경제기획원, 1968 ; 김재익, 1969 ; 김윤식과 김정근, 1974 ; 지정옥 등, 1974 ; 이동우와 양재모, 1981 ; 경제기획원, 1986), 법정 기간내의 신고율은 18%에서 55% 정도로 아직도 저조하다(김재익, 1969 ; 김윤신과 김정근, 1974 ; 지정옥 등, 1977 ; 이동우와 양재모, 1981). 신고된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의 일치율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1975년 강화 지역에서 45.0%(지정옥 등, 1977), 1973-1978년 청주와 예산지역에서 각각 42.6%, 30.0%로 보고되었다(이동우와 양재모, 1981).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인구 동태 신고율은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과 제도의 개선에 힘입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경제기획원, 1986).

본 연구는 최근 농촌지역에서의 출생 신고가 얼마나 법정 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정확한지를 조사하여 출생 신고 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출생 신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경상북도 군위군내 49세 이하의 모든 유배우 여성 6,298명을 대상으로 1985년 4월 한 달 동안 면보건 요원들로 하여금 가정 방문케 하여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영구 불임 수술을 한 여성 2,284명을 찾아내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014명을 가입 여성으로 보고 유배우 가입 여성 명부를 각 면, 동별로 작성하였다. 면보건 요원들에게 유배우 가입 여성들을 1987년 3월 31일까지 만 2년 동안 매월 방문케 하여 임신 여부를 조사하고, 동시에 전입, 전출, 결혼, 폐경등으로 인한 유배우 가입여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였다. 임신부가 발견되면 등록해서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고 출산할 때까지 추적하였다가, 분만하면 출산 일자, 출산 순위, 성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출생 후 1개월과 6개월에 다시 방문하여 출생 신고 여부를 조사하였다. 추적 조사를 통해 조사된 출생아 수는 766명이었다.

또한 1987년 9월에 각 면사무소의 주민 등록 대장을 열람하여 1985년 4월 1일에서 1987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어린이들(944명)의 주민 등록번호, 신고 연월일, 주소 그리고 호주 성명을 조사하였다.

면보건 요원이 추적 조사한 자료와 면사무소에 기록된 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주민 등록표의 출생 연월일과 실제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을 구하였다. 또 산모의 연령, 교육 수준, 출생아의 성별, 출산 순위 등과 출생 신고의 정확성과의 관련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III. 성 적

가정 방문을 통해 추적 조사한 출생아 766명의 자료와 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된 944명의 자료를 서로 비교한 결과는 표1과 같았다. 추적 조사에 등록된 766명 가운데 75.2%인 576명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가 되었으나 2.3%인 18명은 6개월 이후에 신고되었고 22.5%인 172명은 신고된 기록이 없었다. 또 출생 신고된 944명 가운데 37.1%인 350명은 추적조사에서 등록되지 않았다. 추적 조사와 출생 신고 기록에 모두 누락된 경우도 소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추적 조사에서 출생이 확인되었으나 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72명 가운데는, 산모는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나 군위군내 면사무소에 기록이 없는 경우가 96건이었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가 23건이었으나 이중 7건은 신생아 사망의 경우였다. 그리고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분만 후 전출이 14건, 입양 2건, 혼인 신고 미필 4건, 이혼 2건이었고 나머지 31건에 관하여는 면 보건 요원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표 2).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된 어린이 576명 중 법정 신고 기간인 1달 이내의 신고율은 61.3%였다. 법정 기간내의 신고 중 생후 15일이 넘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 법정 기간을 넘기고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사람이 33.9%였고 3개월이 지난 후 신고한 사람은 4.3%였다. 출생일보다 신고일이 오히려 앞선 경우도 3건 있었다(표 3).

Table 1. Concurrence of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 with official birth registration

Birth by follow-up study	Official birth registration			Total(%)
	Registered (%)		Not register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 6 months after birth		
Detected(%)	576 (75.2) (61.0)	18(2.3) (1.9)	172 (22.5)	766 (100.0)
Not detected(%)	350 (37.1)		Unknown	
Total(%)	944 (100.0)			

Table 2. Registration status of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 but not registered on official birth record

Result of interview with mother	No.	%
Mother stated that registration was done	96	55.8
Mother stated that registration was not done (Neonatal death)	23 (7)	13.4
Unable to interview or unknown	53	30.8
Moved out after delivery	14	
Adoption	2	
Marriage was not registered	4	
Divorced	2	
Unknown	31	
Total	172	100.0

Table 3. Differences between actual birth date and the date on which birth was registered

Differences(days)	No.	%
Before actual birth date	3	0.5
Within 30	353	61.3
0- 7	26	
8-14	84	
15-21	101	
22-30	142	
31- 90	195	33.9
91-180	25	4.3
Total	576	100.0

산모의 연령별로 법정 기간내 신고율을 보면 20~24세 연령에서 66.0%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는 62.8%, 30~34세는 52.0%, 35세 이상은 3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낮아졌다. 그러나 20세 미만에서는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16.7%로 특별히 낮았다(표 4).

산모의 교육 수준별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국민학교 졸업자가 45.8%, 중학교 65.3%, 고등학교 65.5%, 대학 졸업자가 61.5%로서 국민학교 졸업자인 경우 가장 낮은 적기 신고율을 보였다(표 5).

출생아의 성별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남아의 경우 62.5%로 여아의 59.4%보다 약간 높았다(표 6).

출산 순위별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첫째아인 경우 64.2%, 둘째아는 62.0%, 셋째아는 56.7%, 넷째아 이상은 43.8%로서 출산 순위가 낮을수록 신고를 더 늦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7).

출생월별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1월 출생아가 76.7%로 가장 높았고 5월 출생아가 3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8).

Table 4. Differences between actual birth date and the date on which birth was registered by maternal age

Maternal age (yr.)	Differences (days)				Total(%)
	≤ -1	0-30	31-90	91-180	
-19	0 (-)	1 (16.7)	5 (83.3)	0 (-)	6 (100.0)
20-24	1 (0.6)	103 (66.0)	45 (28.8)	7 (4.5)	156 (100.0)
25-29	2 (0.6)	206 (62.8)	105 (32.0)	15 (4.6)	328 (100.0)
30-34	0 (-)	39 (52.0)	33 (44.0)	3 (4.0)	75 (100.0)
35-	0 (-)	4 (36.4)	7 (63.6)	0 (-)	11 (100.0)
Total (%)	3 (0.5)	353 (61.3)	195 (33.9)	25 (4.3)	576 (100.0)

Table 5. Differences between actual birth date and the date on which birth was registered by maternal education level

Educational level	Differences (days)				Total(%)
	≤ -1	0-30	31-90	91-180	
Primary school	0 (-)	54 (45.8)	54 (45.8)	10 (8.5)	118 (100.0)
Middle school	1 (0.5)	145 (65.3)	70 (31.5)	6 (2.7)	222 (100.0)
High school	2 (0.9)	146 (65.5)	67 (30.0)	8 (3.6)	223 (100.0)
College	0 (-)	8 (61.5)	4 (30.8)	1 (7.7)	13 (100.0)
Total (%)	3 (0.5)	353 (61.3)	195 (33.9)	25 (4.3)	576 (100.0)

주민 등록표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된 어린이 576명을 대상으로 주민 등록표의 출생 연월일과 실제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을 산모의 특성별로 구해 보았다.

전체 신고자의 일치율은 78.0%였으나 산모의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군에서 83.3%, 20~24세군은 76.3%, 25~29세군은 80.2% 그리고 30~34세군은 74.7%로 비슷한 일치율을 보였으며, 35세 이상군에서는 54.5%로 타 연령군에 비해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39명은 실제 출생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산모의 나이가 19세 이하와 30세 이상이 20~29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

고자의 10.6%는 실제 출생일보다 1~30일 더 늦은 날짜로, 그리고 4.7%는 31일 이상 더 늦은 날짜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표 9).

산모의 교육 정도별 일치율은 국민학교 졸업자가 67.8%, 중학교 78.8%, 고등학교 81.6%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92.3%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치율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실제 출생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등록된 비율이 높았다(표 10).

출생아의 성별 일치율은 남아에서 80.7%, 여아에서 73.8%로 남아에서 높았다(표 11).

출산 순위별 일치율은 첫째아는 78.9%, 둘째아는 80.0%, 셋째아는 77.6%로 비슷하였으나 넷째아 이상에서는 56.3%로 현저히 낮았다(표 12).

Table 6. Differences between actual birth date and the date on which birth was registered by infant's sex

Sex	Differences (days)				Total(%)
	≤ -1	0-30	31-90	91-180	
Male	1 (0.3)	217 (62.5)	118 (34.0)	11 (3.2)	347 (100.0)
Female	2 (0.9)	136 (59.4)	77 (33.6)	14 (6.1)	229 (100.0)
Total (%)	3 (0.5)	353 (61.3)	195 (33.9)	25 (4.3)	576 (100.0)

Table 7. Differences between actual birth date and the date on which birth was registered by birth order

Birth order	Differences (days)				Total(%)
	≤ -1	0-30	31-90	91-180	
1st	2 (0.9)	149 (64.2)	69 (29.7)	12 (5.2)	232 (100.0)
2nd	1 (0.4)	152 (62.0)	85 (34.7)	7 (2.9)	245 (100.0)
3rd	0 (-)	38 (56.7)	25 (37.3)	4 (6.0)	67 (100.0)
4th ≤	0 (-)	14 (43.8)	16 (50.0)	2 (6.3)	32 (100.0)
Total (%)	3 (0.5)	353 (61.3)	195 (33.9)	25 (4.3)	576 (100.0)

Table 8. Differences between actual birth date and the date on which birth was registered by birth month

Birth month	Differences (days)				Total(%)
	≤ -1	0-30	31-90	91-180	
January	0 (-)	46 (76.7)	13 (21.7)	1 (1.7)	60 (100.0)
February	0 (-)	33 (63.5)	15 (28.8)	4 (7.7)	52 (100.0)
March	1 (2.2)	35 (76.1)	8 (17.4)	2 (4.3)	46 (100.0)
April	0 (-)	25 (56.8)	16 (36.4)	3 (6.8)	44 (100.0)
May	0 (-)	20 (37.7)	30 (56.6)	3 (5.7)	53 (100.0)
June	0 (-)	26 (63.4)	13 (31.7)	2 (4.9)	41 (100.0)
July	0 (-)	19 (46.3)	19 (46.3)	3 (7.3)	41 (100.0)
August	0 (-)	26 (56.5)	18 (39.1)	2 (4.3)	46 (100.0)
September	2 (3.8)	31 (59.6)	18 (34.6)	1 (1.9)	52 (100.0)
October	0 (-)	36 (70.6)	12 (23.5)	3 (5.9)	51 (100.0)
November	0 (-)	30 (68.2)	13 (29.5)	1 (2.3)	44 (100.0)
December	0 (-)	26 (56.5)	20 (43.5)	0 (-)	46 (100.0)
Total (%)	3 (0.5)	353 (61.3)	195 (33.9)	25 (4.3)	576 (100.0)

Table 9. Differences between birth date on identification card and actual birth date by maternal age

Maternal age(yr.)	Differences (days)				Total(%)
	≤ -1	No difference	1-30	31 \leq	
-19	1 (16.7)	5 (83.3)	0 (-)	0 (-)	6 (100.0)
20-24	13 (8.3)	119 (76.3)	16 (10.3)	8 (5.1)	156 (100.0)
25-29	16 (4.9)	263 (80.2)	33 (10.1)	16 (4.9)	328 (100.0)
30-34	7 (9.3)	56 (74.7)	9 (12.0)	3 (4.0)	75 (100.0)
35-	2 (18.2)	6 (54.5)	3 (27.3)	0 (-)	11 (100.0)
Total (%)	39 (6.8)	449 (78.0)	61 (10.6)	27 (4.7)	576 (100.0)

Table 10. Differences between birth date on identification card and actual birth date by maternal education level

Educational level	Differences (days)				Total(%)
	≤ -1	No difference	1-30	$31 \leq$	
Primary school	11 (9.3)	80 (67.8)	17 (14.4)	10 (8.5)	118 (100.0)
Middle school	16 (7.2)	175 (78.8)	20 (9.0)	11 (5.0)	222 (100.0)
High school	12 (5.4)	182 (81.6)	23 (10.3)	6 (2.7)	223 (100.0)
College	0 (-)	12 (92.3)	1 (7.7)	0 (-)	13 (100.0)
Total (%)	39 (6.8)	449 (78.0)	61 (10.6)	27 (4.7)	576 (100.0)

Table 11. Differences between birth date on identification card and actual birth date by infant's sex

Sex	Differences (days)				Total(%)
	≤ -1	No difference	1-30	$31 \leq$	
Male	24 (6.9)	280 (80.7)	31 (8.9)	12 (3.5)	347 (100.0)
Female	15 (6.6)	169 (73.8)	30 (13.1)	15 (6.6)	229 (100.0)
Total (%)	39 (6.8)	449 (78.0)	61 (10.6)	27 (4.7)	576 (100.0)

Table 12. Differences between birth date on identification card and actual birth date by birth order

Birth order	Differences (days)				Total(%)
	≤ -1	No difference	1-30	$31 \leq$	
1st	17 (7.3)	183 (78.9)	22 (9.5)	10 (4.3)	232 (100.0)
2nd	14 (5.7)	196 (80.0)	23 (9.4)	12 (4.9)	245 (100.0)
3rd	4 (6.0)	52 (77.6)	7 (10.4)	4 (6.0)	67 (100.0)
4th \leq	4 (12.5)	18 (56.3)	9 (28.1)	1 (3.1)	32 (100.0)
Total (%)	39 (6.8)	449 (78.0)	61 (10.6)	27 (4.7)	576 (100.0)

출생 월별 일치율은 9월 출생아가 71.2%로 가장 낮았고 1월 출생아가 85.0%로 가장 높은 율을 나타냈다. 3월 출생아는 실제 출생일보다 빠르게 등록된 율이 현저히 높았다(표 13).

이상에서 6개월 이내 신고자 중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61.3%, 실제 출생 연월일과 주민 등록표의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은 78.0%로 나타났지만 추적 조사된 출생아의 22.5%인 172명은 출생 신고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작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확인된 576명과 확인이 안 된 172명의 산모의 연령, 교육 수준, 출생아의 성별, 출산 순위를 비교해 보았다. 출생 신고가 확인된 경우가 확인 안 된 경

우보다 산모의 연령이 비교적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4). 산모의 교육 수준은 출생 신고가 확인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일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학교 학력의 경우는 각각 20.5%, 20.3%로 별 차이가 없었다(표 15). 출생아의 성비는 출생 신고가 확인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6). 출산 순위는 출생 신고가 확인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높았지만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특히 낮은 넷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Table 13. Differences between birth date on identification card and actual birth date by birth month

Birth month	Differences (days)				Total(%)
	≤ -1	No difference	1-30	$31 \leq$	
January	2 (3.3)	51 (85.0)	5 (8.3)	2 (3.3)	60 (100.0)
February	5 (9.6)	43 (82.7)	2 (3.8)	2 (3.8)	52 (100.0)
March	8 (17.4)	35 (76.1)	3 (6.5)	0 (-)	46 (100.0)
April	1 (2.3)	34 (77.3)	7 (15.9)	2 (4.5)	44 (100.0)
May	4 (7.5)	41 (77.4)	6 (11.3)	2 (3.8)	53 (100.0)
June	1 (2.4)	33 (80.5)	4 (9.8)	3 (7.3)	41 (100.0)
July	3 (7.3)	30 (73.2)	6 (14.6)	2 (4.9)	41 (100.0)
August	2 (4.3)	37 (80.4)	5 (10.9)	2 (4.3)	46 (100.0)
September	5 (9.6)	37 (71.2)	7 (13.5)	3 (5.8)	52 (100.0)
October	2 (3.9)	40 (78.4)	5 (9.8)	4 (7.8)	51 (100.0)
November	4 (9.1)	34 (77.3)	5 (11.4)	1 (2.3)	44 (100.0)
December	2 (4.3)	34 (73.9)	6 (13.0)	4 (8.7)	46 (100.0)
Total (%)	39 (6.8)	449 (78.0)	61 (10.6)	27 (4.7)	576 (100.0)

Table 14. Maternal age distribution of infants detected by follow-up study by birth registration status

Maternal age (yr.)	Register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Not registered	
	No.	%	No.	%
<19	6	1.0	1	0.6
20-24	156	27.1	55	32.0
25-29	328	56.9	97	56.4
30-34	75	13.0	16	9.3
35-	11	1.9	3	1.7
Total	576	100.0	172	100.0

Chi-square=2.96, df=4, p=0.57

Table 15. Maternal education level of infants detected by follow-up study by birth registration status

Educational level	Register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Not registered	
	No.	%	No.	%
Primary school	118	20.5	35	20.3
Middle school	222	38.5	52	30.2
High school	223	38.7	75	43.6
College	13	2.3	10	5.8
Total	576	100.0	172	100.0

Chi-square=8.74, df=3, p=0.03

Table 16. Sex distribution of infants detected by follow-up study by birth registration status

Sex	Register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Not registered	
	No.	%	No.	%
Male	347	60.2	91	52.9
Female	229	39.8	69	40.1
Unknown	0	0	12	7.0
Total	576	100.0	172	100.0

Chi-square=0.46, df=1, p=0.50

Table 17. Birth order of infants detected by follow-up study by birth registration status

Birth order	Register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Not registered	
	No.	%	No.	%
1st	232	40.3	83	48.3
2nd	245	42.5	67	39.0
3rd	67	11.6	13	7.6
4th <	32	5.6	9	5.2
Total	576	100.0	172	100.0

Chi-square=4.49, df=3, p=0.21

5.6%, 5.2%로 별 차이는 없었다(표 17).

IV. 고 찰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출생 신고가 법정 기간내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출생아의 생년월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고되는지 알아 보고 현행 출생 신고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1985년 4월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출생한 766명의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호적법에 의한 현행 출생 신고 제도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나 본적지의 읍, 면 또는 구, 시의 호적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부모, 호주, 동거자,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법정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호적법에 의해 과태료를 내고 해태 이유서 1부를 내면서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상원, 1986).

본 추적 조사에서 발견된 출생아 766명 중 576명인 75.2%는 출생후 6개월 이내에 군위군내 출생 신고가 되었으며 172명은 되어 있지 않았다. 출생 신고가 된 어린이와 안된 어린이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산모의 연령과 교육 수준 그리고 어린이의 출산 순위와 성별 분포에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정확성을 구하여도 심각한 선택 편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된 576명 가운데 법정 기간내에 신고된 경우는 353명으로 적기 신고율은 61.3%였다. 이것은 연구 방법 및 대상이 비슷한 1975년의 강화도 연구의 법정 기간내(14일 기준) 신고율 49.4%보다 높았으나 4주 이내의 신고율로 보고한 63.1%(지정옥 등, 1977) 보다는 오히려 낮은 것이다. 그러나 강화도 연구에서는 호적부에 출생 신고 기록이 확인된 전체를 분모로 했고 또 실제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호적부에 기록된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내 신고율을 조사했으므로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 하겠다. 출생 신고의 법정 기간은 1974년 9월 대법원 행정 회의의 건의안을 통하여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기로 되어 1975년 12월 31일에 호적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김윤신과 김정근, 1974). 1973~1978년의 청주와 예산에서 법정기간을 1개월로 하고 실제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25.3%, 26.5%

라고 하였다(이동우와 양재모, 1981). 그러나 여기서도 본 연구와 같이 미신고 건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각각 27.1%, 27.8%가 된다. 이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과거의 연구에서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신고에 대한 무관심 또는 인식 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익, 1969; 김윤신과 김정근, 1974). 그리고 청주 및 예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생 신고 의무 및 신고 장소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법정 기간을 알고 있는 경우는 청주가 13.4%, 예산이 10.7%(이동우와 양재모, 1981)로 상당히 낮아서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군위군이 청주와 예산보다 높은 것은 조사 연도의 차이에 기인된 것도 있겠으나 1978년부터 군위군에서 실시된 시범 보건 사업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모의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군에서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45.8%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산모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산모의 나이가 20세 미만으로 어린 경우가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16.7%로 특별히 낮았으며, 20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아 질수록 낮아졌다. 또한 출산 순위가 늦을수록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으며 출산 순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아의 경우 법정 기간내 신고율이 여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남아가 62.5%로 여아의 59.4%보다 약간 높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4월부터 9월 사이의 출생아는 비교적 낮은 법정 기간내 신고율을 보였는데 이는 농번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생 신고의 정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출생 연월일을 실제 출생 연월일과 비교하여 보았더니 일치율이 78.0%였는데 이것은 1975년 강화도의 45.0%(지정옥 등, 1977), 1973~1978년 청주의 42.6%, 예산의 30.0%(이동우와 양재모, 1981)보다는 훨씬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9명(6.8%)는 실제 출생일보다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더 빨랐고 10.6%는 실제 생일 보다 1~30일 늦게, 그리고 4.7%는 31일 이상 늦게 등록되어 있었다. 실제 출생일보다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더 빠른 39명 중 9명은 실제 출생일의 음력으로 신고된 것이고 1명은 신고일의 음력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출생일의

음력 기재율은 1.6%로 나타나 1973~1978년의 청주와 예산에서의 음력 기재율 16.2%, 10.4%(이동우와 양재모, 1981)보다는 훨씬 낮았다.

특히 산모의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 이하일 때, 그리고 출산 순위가 네번째 이상일 때 일치율은 낮고 실제 생일보다 이르게 신고된 율과 더 늦게 신고된 율이 높았다. 이것은 실제 출생일보다 빠르게 신고되어 있는 39명 가운데 9명은 음력 출생일이었으므로 나이가 많은 부모들이 아직도 음력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3월 출생아의 경우 실제 출생일보다 주민 등록표의 출생일을 빠르게 신고한 것이 17.4%로 가장 많았고 앞당겨 신고한 8명 중 5명은 음력 출생일을 신고하였다. 이는 2월 말일까지의 출생아는 취학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출생 신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신고를 늦게 하며 부정확하게 한다는 것인데, 부정확한 신고의 경우는 지연된 신고와 관련이 많다. 즉 지연 신고 때문에 해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출생 일자를 신고 일자에 가깝게 변경하여 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결과 법정 기간 내 신고율 및 출생 신고의 정확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지연 신고율이 높고 부정확하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신생아 사망의 경우 7명 모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출생 및 사망 신고 자료에 의한 영아 사망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날 것이므로 믿을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또한 추적 조사에서 분명히 군위군 거주자로서 출산을 했는데 거주지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전체 출생아의 22.5%에 해당하는 172명이나 되었고 이들 가운데 55.2%인 95명은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출생 신고는 거주지나 본적지 어느 한 쪽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적지에 신고한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이 주민 등록지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 가운데는 주민 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군위군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도 추적 조사된 출생아 수는 766명이었으나 출생 신고가 된 것은 944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것은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본적지로 출생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어떤 지역에서 출생 신고 자료로는 지역내에서 일어난 출생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 주민 등록표의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것이 약 4분의 1이 되므로 출생 신고율의 향상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출생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985년의 시설 분만율이 도시 84.4%, 농촌 51.3%, 전국 평균 75.3%(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5)로 매우 높고 앞으로 지역 의료 보험의 확대로 계속 높아질 것이므로 분만 개조를 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부모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신고율과 신고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 외에도 신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건 의료 기획에 필요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비의료인에 의한 가정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 제도대로 신고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V. 요약

우리 나라의 최근 농촌 지역에서의 출생 신고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출생 신고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군위군에 거주하는 모든 유배우 가임 여성 4,014명을 1985년 4월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면보건 요원들이 추적 조사하여 찾아낸 모든 출생아 766명의 출생 일자와 1987년 9월 30일자로 면사무소의 주민 등록 대장을 열람하여 얻은 동기내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944건의 출생 신고 기록을 대조하였다.

추적 조사한 766명중 576명(75.2%)이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6명(12.5%)은 출생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이 없었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법정 신고 기간인 30일 이내 신고율은 61.3%였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산모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은 국민학교 졸업자에서 그리고 출산 순위가 늦을수록 낮았다. 출생 월별 신고율은 10월부터 3월 시아의 출생아가 4월에서 9월 사이의 농번기의 출생아에 비해 높았다. 신생아기에 사망한 7명은 모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실제 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표의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은 78.0%였고 6.8%는 실제 출생일보다 더 이른 날짜로 신고되어 있고 15.3%는 더 늦은 날짜로

신고되어 있었다. 일치율은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54.5%로 그리고 출산 순위가 4순위 이상일 때 56.3%로 특별히 낮았다. 또 산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치율이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3월에 출생한 경우에 실제 출생일보다 이른 날짜로 신고하는율이 17.4%로 다른 달에 비해 높았고 이들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이것은 취학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 나라 농촌 지역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 및 신고의 정확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출생 신고 자료에 의한 영아 사망률은 매우 부정확한 실정이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신고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만 개조를 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부모의 주소지로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가정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 제도대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6 인구 동태 통계. 1968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동태 신고 현황. 198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인구 동태 통계. 1986
 김윤신, 김정근.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의 인구 동태통계에 관한 고찰. 인구 문제 논집 1974 ; 18 : 135-147
 김재익. 한국 농촌에 있어서 인구 동태 통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 의대 논문집 1969 ; 2(2) : 148-159
 김정순. 역학 원론. 신광 출판사, 1986, 쪽. 106-109
 이동우, 양재모. 한국의 인구 동태 사상 신고의 부진 이유 및 신고 제도의 개선 방향. 인구 문제 논집 1981 ; 23 : 45-54
 조상원. 법전. 현암사, 1986, 쪽. 882-884
 지정옥, 김영기, 김기순. 한국 일부 농촌 지역의 출생 사건과 출생 신고에 관한 연구. 예방 의학 회지 1977 ; 10(1) : 109-117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1985, 쪽. 132
 Last JM. *Maxcy-Rosenau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1th ed.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80, pp. 1510-1511
 Mausner JS, Kramer S. *Epidemiology-an introductory text*. 2n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5, pp. 70-76